

“많은 지식 갖춘 잘하는 전문인 되고싶다”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박사과정의 포장인

포장업계 여성인력의 선두

상품의 보호기능에서부터 마케팅의 강화라는 측면까지 포장의 역할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포장은 많은 산업계에서 전반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때로는 신제품의 성패를 결정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상품의 기능 가운데 얼굴꺾인 포장은 최종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취급되는 것에서는 소외시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주변분야의 디자인이 강조되어 포장을 대표하기도 했다.

포장은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론 투박하고 중량감 있는 형태의 재질 및 방법을 요구하는 관계로 이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않아 사실상 여성인력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포장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인력은 디자인분야에 한정돼 있고 경영측면에서도 많은 인력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미원(대표 유영학) 식품건강연구소 식품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주(24)씨는 포장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보기드문 인재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양생화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주)미원에 입사한 최은주씨는 전반적인 포장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지만 신제품의 포장재, 유통기간 등을 검사해 포장재질의 개선 등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생소하기만한 포장분야에서 일을 할 줄은 예측도 못했다는 최은주씨는 좀더 많은 지식을 갖추

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포장관련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 세미나 적극 참여

그녀는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만큼 남보다 더 노력해야 겠지요”라며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학교생활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과 마케팅을 고려한 식품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했다.

미원에 그녀가 입사해 처음으로 배정받은 일은 ‘김부각’, ‘청정미역’, ‘햇김’ 제품의 유통기간을 조사하고 포장재질을 실험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험기구가 놓여진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문서작성 절차의 미숙으로 처리 시간이 오래걸려 힘이 들었지만 주어진 시간동안 실험을 끝내고 보고서작성을 마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최근 포장들은 환경을 고려한 측면이 많고 소비자의 만족도 및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디자인 및 포장기법을 적용하는 경향입니다.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과대포장의 빈도는 줄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제품이 눈에 띕니다.”라며 그녀가 느끼고 있는 최근의 포장동향을 진단했다.

최은주씨가 속해 있는 식품건강연구소 식품3팀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한편으로 포장업계 여성의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고 말하는 최은주 씨.
그녀는 현재 대학에서 영양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은 지난해 PP와 전분을 배합한 분해성 수지를 재질로 사용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는데 EPS보다 가격면에서도 저렴해 주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노력과

그녀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제품의 포장재를 선택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소비자도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에 앞장서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지론을 펴기도 했다.

회사내에서도 연구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자율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근무분위기가 좋다는 그녀는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연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파로 처음 접하는 일도 스스로 풀어나가는 아무진 업무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영양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회사일을 먼저 배우기 위해 한학기를 휴학하고 다음학기부터 연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싶어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섭렵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착실히 배우고 회사는 물론 소비자, 업계에서 인정받는 포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성인력이 적은 만큼 시작하는 게 잘 해야 앞으로 많은 여성인력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자부심과 함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음악을 듣고 틈이 나는 대로 영화를 보러간다는 그녀는 “요즘에는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다보니 좋아하는 영화 한편 못보고 지낸다”며 활짝 웃었다.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소화할 여유가 아직은 없다’고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최은주씨는 포장분야의 여성인력 선두주자로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며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최은주씨는 일과 생활을 잘 조화시키며 포장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오선진 기자